

손흥민 '발롱도르' 11위...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축구 잡지 '프랑스풋볼' 주관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

2005년 설기현·박지성 후보에 순위에는 끝내 진입 못해

벤제마, 생애 첫 '발롱도르' 수상 푸테야스는 '여자 발롱도르'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30)이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Ballon d'Or)에서 11위에 올랐다.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열린 2022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후보 30명 중 1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후보 30명 중 유일한 아시아 국적 선수였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 프랑스풋볼이 주관해 1956년부터 한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손흥민은 2019년 22위에 오르며 이미 아시아인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07년 이라크 공격수 유니스 마흐무드가 29위에 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30)이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Ballon d'Or)에서 11위에 올랐다. AP/뉴스시스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사뮈엘 극장에서 열린 제66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발롱도르 트로피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자 발롱도르 알렉시아 푸테야스(FC 바르셀로나) AP/뉴스시스



른 바 있다.

한국 선수 중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선수는 3명이다. 설기현(안더레흐트)은 2002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2005년에 후보 50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는 프랑스 국가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골잡이로 활약 중인 카림 벤제마다. 벤제마는 1998년 지

네딘 지단 이후 24년 만에 발롱도르를 받은 프랑스 선수가 됐다.

2위부터 5위는 세네갈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이끌었던 사디오 마네(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를 리그 우승으로 이끈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을 리그에서 우승시킨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 이집트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

을 이끌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에 오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차지했다.

6위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7위는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 8위는 바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9위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10위는 공격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10위로 손흥민에 한 계단 앞섰다.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위, 손흥민 팀 동료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토트넘)은 21위다.

2019년과 2021년 발롱도르를 연속 수상한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는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후보 30명 안에 들지 못했다. 레반도프스키는 최고의 골잡이에게 수

여되는 '게르트 뮐러상'을 수상했다.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은 티보 쿠르투아가 받았다. 최고 신인이 받는 '코파 트로피'는 파블로 가비(바르셀로나)에게 돌아갔다.

올해의 클럽상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주어졌으며 여자 발롱도르는 2년 연속 알렉시아 푸테야스(바르셀로나)가 수상했다. 스카이드일리/뉴스시스

김현주·박희순, 또 만났네... 연상호 감독 '선산' 함께 등반

넷플릭스 시리즈 12월 첫 방송

연상호 감독의 '선산' 등반이 시작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선산'은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작은아버지의 죽음 후 남겨진 선산을 상속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연 감독은 넷플릭스 '지옥'(2021) 연출-각본을 맡은 데 이어 '선산' 기획과 각본에 참여한다. 민홍남 감독이 연출한다. 연 감독의 영화 '부산행'(2016) '열력'(2018) '반도'(2020)의 조감독 출신이다.

김현주는 연 감독과 '지옥'에 이어 두번째 만남이다. '선산' 상속자 '윤서하'를 연기한다. 급작스러운 작은아버지의 죽음으로 선산을 상속받고 불길한 사건에 휘말린다. 박희순은 형사 '최성준'으로 분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선산'에 출연하는 박희순(왼쪽)과 김현주. 뉴스시스

한다. 마을에 연이어 발생한 불길한 사건이 선산 상속과 연관 돼 있음을 직감하고 파헤친다.

두 사람은 12월 첫 방송되는 SBS TV 드라마 '트롤리'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후 또 만나 기대를 모은다. 스카이드일리/뉴스시스

배우 오연서, 추리소설 덕후였네... "한번 펼치면 못 멈춰"

ENA·tvN '동서남북' 출연

배우 오연서가 추리소설 덕후 면모를 뽐낸다.

오는 18일 오후 9시 방송하는 ENAtvN STORY '수상한 책방 동서남북'(이하 '동서남북') 3회에서는 오연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날 4MC(조세호·차태현·이석훈·박상영)가 "무슨 책을 좋아하세요?"라고 묻자, 오연서는 "허가시노 게이고, 오코미조 세이지..."라며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들을 언급한다. 이어 "한번 펼치면 멈출 수가 없다"고 추리소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4MC는 추리소설 덕후이자, 만화 덕후이



수상한 책방 동서남북 3회에 출연한 배우 오연서(오른쪽). 뉴스시스

기도 한 오연서의 취향에 딱 맞는 '만화카페'를 찾는다. 들어가자마자 오연서는 차태현에게 "팔이 있으시니까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다"며 '좁비가 되어 버린 팔'을, 이석훈에게는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전업주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라며 '극주부'를 추천한다.

또 한 명의 만화덕후로 꼽히는 조세호와 오연서는 이런저런 추천작을 공유하던 중, 국내에서도 유명한 '소년탐정 김전일' 이야기를 꺼낸다. "20년 뒤 이야기인 '김전일 37세의 사건부'로 김전일은 37살이 됐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른이예요"라고 남다른 감회를 드러낸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